

전주권 교통 혁신 구체화...광역생활권 시대 연다

전북도, 2조 규모 계획안 제출
전주~새만금 동서 연결성 강화
환승센터·공영차고지로 편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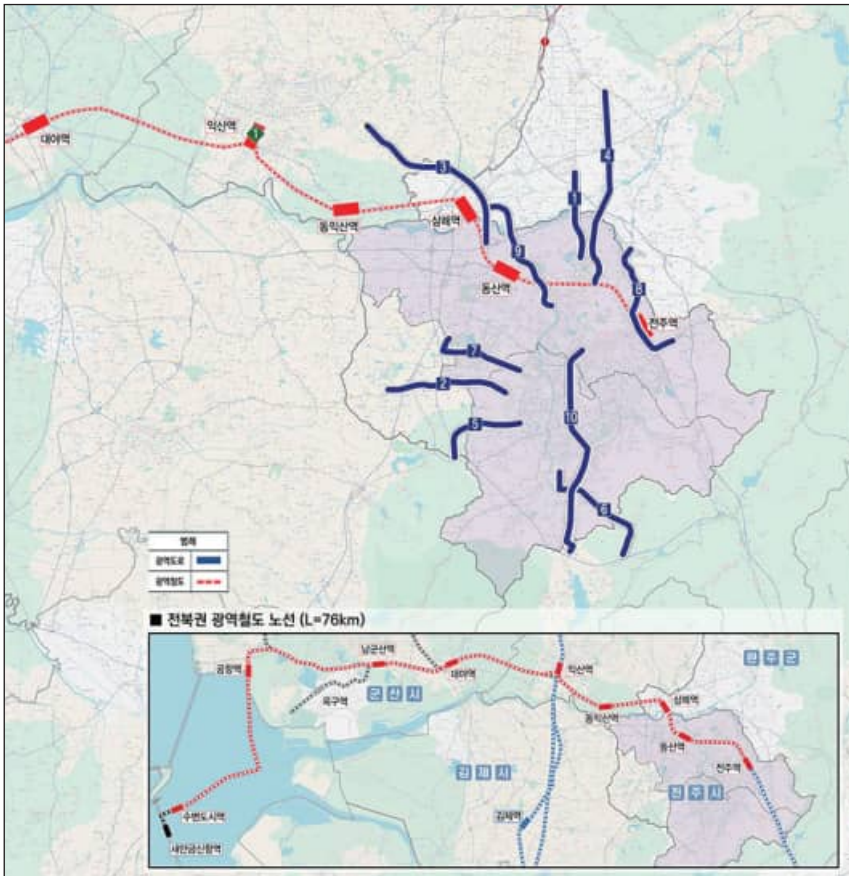
전북도가 전주권을 아우르는 광역교통망 청사진을 구체화했다.

도는 지난 3일 전주권 광역교통시행계획(안)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2조 1,916억 원으로, 이 중 1조 772억 원은 국비로 계획돼 있다.

이번 사업계획에는 전주시를 중심으로 완주, 김제, 익산, 군산을 잇는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등 15개 핵심 사업이 포함됐는데 계획이 확정되면 교통 정체 해소와 통행속도 향상은 물론, 광역생활권 구축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교통 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사업은 △전주 중심의 방사형 광역도로 10개 노선(신설 5개, 확장 5개) △전주~새만금을 잇는 동서축 광역철도 1개 노선(정차역 9곳) △버스·화물 공영차고지 2곳 △환승센터 2곳 건설 등으로 전주권 광역교통 인프라 전반의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역도로 사업은 10개 노선, 총연장



전북도는 지난 3일 전주권 광역교통시행계획(안)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전주권 광역교통시설 사업계획. <사진=전북자치도>

69km 규모로, 전주 외곽과 인근 시군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를 4~6차로로 신설·확장해 지역 연결성을 높이고, 교통 혼잡을 완화할 전망이다.

광역철도는 전주역을 출발해 새만금 수변도시까지 76km를 운행하며, 동산·

삼례·동익산·익산·남군산·새만금공항역 등 9개 주요 거점을 연결한다. 이를 통해 동서 간 연계성과 새만금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이동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버스·화물차 공영차고지 2곳을

조성해 대중교통과 물류 운송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KTX익산역과 광역철도 남군산역에 구축될 환승센터는 철도·버스·택시·승용차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교통 허브로서 환승 시간을 단축하고 이용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4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이후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관련 시군과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전주권 광역교통 협의체를 운영해 주민 요구와 정책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계획 수립을 주관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한국교통연구원과 간담회 및 실무 회의를 이어가며 국가계획 반영 논의로 한층 보강해왔다.

이번 계획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삶을 잇고 기회를 여는 전주권"이라는 비전을 담고 있는데 △방사형 광역 네트워크 완성 △산업·도시 성장축 형성 △지속가능한 교통 혁신을 통한 편리한 광역생활권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을 최종 확정·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정철 기자

‘한 문장에 담긴 전북 매력’ 道, 관광브랜드 슬로건 공모

관광 키워드 공모전에 이어
정체성 슬로건 발굴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 관광의 매력을 담아낼 전북 관광브랜드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9월 초 진행된 키워드 공모전에 이어 전북관광의 매력을 압축적으로 표현할 슬로건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 기간은 9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14일간 진행되며, 전북에 관심있는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접수는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팝업창이나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응모자는 전북관광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참신하고 공감력 있는 슬로건을 자유롭게 제안하면 된다.

앞서 진행된 키워드 공모전에는 3천9백여 명이 참여해 '전북 관광은 ○○○○이다'라는 주제로 'K컬처', '힐링전국', '역사와 전통', '맛과 멋' 등 다양한 키워드가 제안됐다.

도는 이를 토대로 더욱 구체적이고 대중적으로 각인될 수 있는 문구를 찾겠다는 방침이다.

당선작은 전문가 심사 등을 거



쳐 10월 중 발표되며 ▲최우수상 1명(200만 원) ▲우수상 4명(각 50만 원)을 시상한다. 또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5,000원 상당의 커피쿠폰이 제공된다. 선정된 슬로건은 향후 관광브랜드 BI(Brand Identity) 개발과 홍보 디자인에 적극 반영돼 전북 관광의 공식 브랜드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8월부터 2026년 4월까지 관광브랜드 개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주요 내용은 ▲관광브랜드 목표 및 전략 설정 ▲핵심 관광자원 분석과 정체성 확립 ▲슬로건 및 BI 디자인 개발 ▲브랜드 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장정철 기자

전북선관위, 당 회계책임자 정치자금 사적 사용 고발

모 당 전북도당 2명 검찰 고발
허위 회계보고·의무 방임 혐의
2,700만원 현금 인출 등 의혹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모 당 전북도당 회계책임자 A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대표자 B를 정치자금법 제2조, 제48조 등 위반 혐의로 1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회계책임자 A는 2025년 1월부터 5월 까지 신고되지 않은 예금계좌를 사용하며 정치자금으로 지인과 커피를 마

시는 등 총 66회에 걸쳐 45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28회에 걸쳐 2,700여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한편, 그 내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허위의 회계보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표자 B는 회계책임자 선임권자로서 A의 회계처리를 방치하고, 허위 회계보고 등에 대한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 제2조(기본원칙)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법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법 제48조(감독의무해태죄 등)에 따르면 회계책임자의 회계장부 허위 기재 및 허위 회계보고 등에 대한 감독 의무를 태만히 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앞으로도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해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여 정치자금 회계 질서를 확립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RE100 앞당기기’ 전북형 풍력산업 실증 본격화

‘에너지솔루션’ 풍력분과 회의
과제 로드맵 구체화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가 RE100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풍력산업 실증과제를 본격화, 전북형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낸다.

도는 18일 전북테크노파크에서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풍력분과 제3차 정기회의’를 열고, 지역 풍력산업의 발전 방향과 핵심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원식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을 비롯해 군산대학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등 민·산·학·연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하여 전북형 풍력산업을 본격적으로 키워가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회의에서는 ▲군산 금빛바람 클러스터 이니셔티브 ▲해상풍력 유지보수 고도화 및 인력양성 플랫폼 구축 ▲지역주민 이익공유 연계 상생모델 실증 등 3가지 신규과제가 제안됐



도는 18일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풍력분과 제3차 정기회의'를 열고, 지역 풍력산업의 발전 방향과 핵심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사진=전북도>

다. 전북도는 이들 과제를 통해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주민과의 상생을 도모, 전북형 풍력산업 모델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 풍력분과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용 베어링 성능평가센터 구축 ▲해상풍력 유지보수선 모델 개발 및 실증 ▲해상풍력 계통안전화 제이기 실증 ▲군산항 해상풍력 지원기반 구축

연구 등 기존 안건의 진행 상황이 공유됐다. 안건별 실행 로드맵을 구체화해 RE100 얼라이언스 정책 실현의 추진력을 높이기도 했다.

신원식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회의는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 조성과 RE100 기반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4. 석지 않는다

전북 산악지역 민간 투자로 관광산업 ‘새 장’

전북형 산악관광 민간 아이디어 융합·투자 미래형 관광산업 육성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24일 오후 1시,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전북자치도 산악관광진흥지구’ 민간투자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제2회 전북포럼과 연계해 진행되며, 관광·숙박 개발 분야 민간기업과 시군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정책을 민간 부문에 널리 알리고, 투자 여건과 제도적 지원을 설명하

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여행 트렌드가 자연·치유·레포츠 중심의 체험관광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산악관광은 미래 관광산업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풍부한 산악자원을 바탕으로 국내외 관광 수요를 선점하고, 민간과의 협력으로 고부가가치 관광 모델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행사는 △산악관광 홍보 동영상 상영 △산악관광진흥지구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설명 △선도지역별 투자 기회와 지원 혜택 안내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선도지역별 세부 사업은 해당 시군 관계자가 직접 설명과 답변을 맡

아 민간기업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등 관련법규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산악지형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치유·레포츠·생태체험이 가능한 복합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민간 투자자에게는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재정 지원,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투자 의지를 이끌어내어,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상생 모델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정석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산악관광은 단순한 레저 차원을 넘어 치유·생태·레포츠·문화가 융합

된 미래형 관광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는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차별화된 사업 모델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향후에도 산악관광진흥지구 제도 홍보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설명회와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국내외 투자설명회와 연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산악관광 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글로벌 관광시장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도, 지역경제 혁신 박람회 참가

새만금 고용특구·창업성과 전국에 알리

전북특별자치도가 18일부터 20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2025 지역경제 혁신 박람회’에 참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정책 성과를 전국에 알린다.

이번 박람회는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평가원·한국일보가 공동 주관하며, 전국 80개 기관이 184개 부스를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와 혁신 성과를 공유하는 대규모 행사다.

전북자치도는 36㎡ 규모의 독립부스를 설치해 △로컬JOB센터 △새만금 고용특구 △창업·벤처 성과 등

도의 일자리 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를 집중 홍보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전국 유일의 고용특구로 지정된 새만금 고용특구를 통해 입주기업의 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미래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 안정적 고용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소개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자치도, 수산물 직거래장터 ‘어서옵쇼’ 운영

추석 맞아 판로 확대 최대 56% 할인 판매

전북특별자치도는 추석을 맞아 도내 우수 수산물의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을 위해 오늘부터 20일까지 도청 서편광장에서 수산물 직거래장터 ‘어(魚)서옵쇼(show)’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번 행사는 물가 상승으로 부담을 느끼는 도민들에게 신선한 수산물을 최대 56% 할인된 가격에 제공해 실속 있는 명절 장보기를 돕고, 지역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생산·가공업체 34개소가 참여,

바지락·새우·민물장어·조미김·추어탕 등 150여 개 품목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특히 선착순 5,000원 할인쿠폰(1인 1매·품목별 1회 사용)에 더해, 3만 원 이상 구매 시 5,000원권 1장, 5만 원 이상 구매 시 2장의 추가 쿠폰을 증정해 한번 더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명절 선물과 제수용품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에게 최대 15,000원까지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참여 업체 중 15곳은 전북 수산물 공동브랜드 ‘해가람’ 지정업체로, HACCP 인증·친환경 인증 등 국가 공인 품질 인증을 충족해 안전성과 품질이 보장된 수산물을 제공한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



장은 “수산물 직거래장터를 통해 도민들이 전북 바다의 신선함을 한 자리에 만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웃는 풍성한 한가위가 되길 바란다”며 “앞

으로도 도내 수산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DNA 정보로 젓소 능력 미리 본다’ 개량 속도 4년 앞당겨

유전능력평가 정확도 향상 낙농가 생산비 절감 기대

디엔에이(DNA) 정보를 활용한 유전체 선발 기술을 국내 젓소 유전능력평가에 적용, 능력이 우수한 젓소를 기존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젓소 부모·선조의 혈통 정보와 우유 생산기록을 토대로 평가하던 기존 방식에 디엔에이(DNA) 분석 결과를 반영하는 새로운 국가단위 유전체 유전능력평가 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젓소 개량은 국민에게 품질 좋은 우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낙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가족개량 총괄기관으로서 젓소 국가단위 유전능력평가를 수행하며 산유량이 많고 품질

좋은 우유를 생산하는 유전능력을 가진 씨수소를 선발, 개량하고 있다.

젓소 유전능력평가란, 젓소가 가진 능력을 다음 세대에 얼마나 물려줄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유전능력평가는 기록이 쌓일수록 정확도가 높는데, 기존 평가 방식에서는 송아지의 혈통 자료만을 채택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낮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국립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젓소개량사업소, 한국축종개량협회와 협력해 2만 4,000여두의 유전체 자료를 수집·검증해 유전체 유전능력평가를 개발하게 됐다.

디엔에이(DNA) 품질검사와 부모·자식 간 정보 일치 여부 확인 등 다양한 검증을 거쳐 신뢰성도 확보했다. 이로써 혈통·생산기록에 더해 개체별 디엔에이(DNA) 정보에 기반한 평가, 분석을 할 수 있어 더욱 정밀한 예측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자매 젓소가 모두 동일한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됐지만, 새로운 평가 체계를 활용하면 디엔에이(DNA) 차이에 따라 개체별 능력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 그 결과, 어린 송아지의 유전능력평가 정확도가 기존 25%에서 60%로, 평균 35%포인트 향상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씨수소 선발에 유전체 평가를 적용하면, 송아지 단계에서 능력을 예측할 수 있어 정액 생산이 가능한 1.5년 이내에 선발이 가능하다. 이는 평균 5.5년이 걸리던 선발 기간을 대폭 줄여 세대 간격을 단축하고, 젓소 개량 속도를 높이는 효과를 낸다.

낙농가 입장에서도 암송아지의 유전체 능력을 조기에 평가하면, 우수한 개체는 맞춤형 씨수소와 교배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능력이 떨어지는 개체를 이른 시기에 판매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일례로, 암소가 우유 생산 능력을 갖추고 실제 우유를 생산하기까지 약 3년이 걸리며, 이 기간 사육비는 1,768만 원이 든다. 반면, 같은 기간 우유 판매 수입은 1,187만 원에 그쳐 마리당 581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유전체 유전능력평가를 활용해 송아지 시기에 유전능력을 정확히 평가하면 이러한 손실을 미리 차단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유전체 유전능력평가가 국가 개량 체계를 혁신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유전체 자료 수집 규모를 연간 1,000두에서 3,000두로 확대해 평가 정확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김진형 부장은 “국립축산과학원은 국가대표 축산 연구기관으로서 씨수소 개량 체계 개선과 낙농가 현장 활용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창립 40주년’ 대한전문건설협회전북도회 기념식

경영여건 개선 다짐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회원사 임·직원 및 내외빈 700여명을 초청해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985년 설립된 공직유관단체이다.

현재 전국 6만여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건설산업의 ‘공정성 강화·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구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념식 자리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협회 중앙회 윤학수 회장, 유희태 원주군수,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전주시의회 박형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김병진 전북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 김대근 전북개발공사 사장,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소재지 회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임근홍 회장은 “직접시공 주체로 건설현장 최일선에서 전문건설업 성장·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회원 여러분이

값진 노력으로 협회 창립 40주년 금자탑을 쌓을 수 있게되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회원사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한국은행 전북본부 다문화가정 초청행사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18일 부안군 가족센터 및 금융감독원 전북지원과 공동으로 다문화가정 초청행사를 실시했다.

행사는 다문화 이주여성 16명을 초청해 화폐·경제 상식 및 금융 생활 관련 교육을 실시한 후 케이크 만들기 등 문화 체험 행사를 가졌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앞으로 지역아동센터 등 소외계층 대상 경제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도, 월드푸드테크25 식물기반푸드 포럼 성료

미래 식품산업 전략 논의

전북자치도는 월드푸드테크협의회(WFTC)와 함께 18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국제회의실에서 ‘월드푸드테크25 식물기반푸드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농림축산식품부, 전북도, 익산시, WFTC, 식품진흥원 등 관계자와 국내외 기업·대학·연구기관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미래 식품산업의 전략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포럼은 식물기반 대체식품이 갖는 환경적 가치, 식량안보 기여, 미래 식문화 창출 가능성을 조명하며 산·학·연·관 협력 플랫폼으로 마련됐다.

산업 세션에서는 CJ제일제당, 알티스 트, 조인앤조인 등 혁신 기업들이 글로

벌 시장 전략과 지속가능한 식품산업 비전을 공유했다. 서울대 최영진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서는 업계 전문가들이 최신 동향과 과제를 논의했다.

연구개발 세션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립공주대, 식품진흥원 등이 최신 연구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전북지회 이장상 회장이 좌장으로 참여한 패널토론에서는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기술적 도전과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산학연 관계자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앞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식품의 해법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LX공사 ‘공간정보 창업지원센터’개소

국토교통부의 전략적 지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사장 어명소)의 전문 운영 역량이 결합된 ‘공간정보 창업지원센터’가 개소했다.

공간정보를 활용한 혁신창업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LX공사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실증 △투자유치·판로지원 △사업화 자금 연계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공간정보 기반 스타트업이 보다 빠르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교육청, 초등생 국어·수학·영어 탐구노트 보급

교원 직접 집필·검토 전문성 확보·사교육비 경감·학부모 부담 완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 문해력 저하에 대응하고, 공교육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초등학교 교과별 탐구노트를 개발·보급했다고 18일 밝혔다.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되는 ‘개념과 어휘’를 체계화해 학생 수준에 맞는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학습자료를 제작한 것이다.

탐구노트는 공교육 내 학력신장 책임 강화에 맞춰 개발된 자료로, 전북의 현장 교원이 직접 집필·검토하고 대학 교수진이 감수해 전문성을 확보했다.

수업·보충지도·가정학습에서 모두 활용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적 학습 지원 도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학생 스스로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학습자신감 및 성취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올 2학기 보급된 탐구노트는 초등학교 3~6학년 대상 국어·수학·영어 3개 교과에 각 4만7,000여부다.

도내 초등학교 409개교 중 94%에 달하는 383개교가 사용 신청을 했으며, 학생수 기준으로는 4만5,365명(83%)에 이르면서 학교 현장에서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1학기부터 보급을 시작한 ‘초등 어휘사전 1600’은 학년별 400개 주요 어휘를 뜻·예문·활용·짧은 글쓰기로 정리해 문해력 강화와 자기주도학습을 돕는다.

‘초등수학개념노트’는 핵심 개념-문제해결-정리로 이어지는 구조로 기본·응용·심화 학습을 지원하며, 학생이 직접 개념을 정리하고 설명할 기회를 제공한다.

‘초등영어활용노트’는 단어·구문을 실제 문맥 속에 적용해 말하기와 쓰기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영어학습 역량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개발·보급된 탐구노트가 학교와 교실에서 안착, 활용될 수 있도록 교원 연수와 학부모 안내에도 힘을 쏟는다.

탐구노트 집필진들이 직접 참여해 활용 방법을 밀착 안내하고, 학습교정과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현장 적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수학은 교육지원청 주관 학생·

학부모 행사와 교원 수업나눔 한마당에서 체험부스와 시연, 교실 속 챌린지 활동으로 학습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영어도 교실 속 챌린지 운영과 숏폼 영상·SNS 실천 릴레이로 학생들이 만든 표현 과제를 확산해 접착면을 넓혀나가고자 한다.

최재일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학생은 교과 개념과 어휘를 정확히 이해해 자기주도학습 역량과 성취감을 높일 수 있고, 교사는 체계적 자료 활용으로 수업과 보충지도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학생 문해력 기반 강화와 교과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중·하위권 학생 지원과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현대, 4년 만 챔피언 ‘코앞’

20일 30라운드·이승기 방문

전북현대모터스FC(단장 이도환)가 4년 만의 챔피언 자리에 가까이 다가간다.

전북현대가 20일 오후 4시 30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김천 상무(이하 김천)와 K리그1 30라운드를 치른다.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전북현대 는 현재 2위 김천과의 맞대결에서 승리 시 승점 69점을 확보하며 추격하는 2위권 팀들과 승점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다.

전북현대는 지난 8월 포항전 패배 이후 코리아컵을 포함해 3연승을 달리며 다시 한번 K리그1 우승을 향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K리그1에서 시즌 초반과 달

리 최근 10경기에서 8승 2무, 80%의 압도적인 홈 승률을 보여 승리를 자신한다.

이날은 김제 ‘파트너 데이’로 김제시에서 홍보부스를 마련해 오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김제지평선축제’를 알리고 이와 함께 ‘김제지평선쌀’, ‘쌀 마스크팩’, ‘지평선축제 체험권’ 등을 팬들에게 선물한다.

전주성에 반가운 얼굴도 찾는다.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상무 포함) ‘전북현대의 에이스로 활약한 이승기가 전주성에 방문한다.

이승기는 2023년 부산 아이파크로 이적 후 올해 7월 은퇴를 알렸으나 선수로서 가장 오랜 시간 함께한 전북현대를 찾아 팬들에게 은퇴 인사를 전한다.

/장정철 기자

고영정 작가 개인전 광주 ‘U 갤러리’서 개최

30일까지 꽃사랑 주제 담은 작품 10여 점 전시

“꽃도 사람이다. 슬프기도 사랑스럽기도 한 꽃을 이야기한다”

화선지에 분채를 직접 입혀 전통적으로 ‘꽃’을 표현하는 고영정 작가의 개인전이 광주 ‘U 갤러리’에서 오는 30일까지 개최한다.

‘꽃을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고 작가가 꽃과 사랑을 주

제로 화폭에 담은 작품 10여 점이 펼쳐진다.

대표작으로 ‘낮달맞이’, ‘개양귀비’, ‘파랑에 물들이다’, ‘INFJ’ 등의 작품이 전시됐다.

작가는 꽃과 사람을 동일하게 바라보며 그 속에 내재된 슬픔과 사랑의 이야기를 분채 한국화로 구현했다.

조선대학교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고 작가는 18회 이상의 단체전과 기획 초대전을 진행했으며, 현재 예매회, 선목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고 작가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20여 년이 넘게 정음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화가라는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도해 왔다.

고영정 작가는 “도종환 시인의 시에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라는 구절을 보며, 사람의 인생도 똑같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이나 꽃이 피어나는 건 똑같다. 세상을 예쁘게 바라보며 눈에 보이는 예쁜 꽃을 그리게 됐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도, 수도권 관광객에 관광상품 홍보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는 오늘부터 21일까지 3일간 서울 남산타워 T1층 및 광장(팔각정 앞)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관광팝업스토어와 연계해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이번 홍보부스는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이 공동 주관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관광 팝업스토어’ 행사와 연계해 운영되며, 전북지역 관광기업과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의 우수 관광상품 및 굿즈를 수도권 관광객에게 직접 알리고 판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센터는 홍보부스를 통해 △센터 지원사업 및 수혜기업 성과 홍보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굿즈·주민사업체 물품 전시 및 판매 △SNS 팔로우 이벤트 및 설문조사 등 다양한 홍보 및 이벤트를 추진해 전북 관광기업지원센터와 전북 기업의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전북 관광기업이 수도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고, 관광객에게 전북 관광자원과 기업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홍보부스 운영의 가장 큰 목적이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신속 현안 처리 당부

간부 대상 공직기강 특강 청렴·정치적 중립도 강조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은 18일 본청 2층 강당에서 100여 명의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2025년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행정사무감사와 국정감사 등 굵직한 일정을 앞두고 열린 이날 특강은 2025년 정책·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 내실 있는 본예산 편성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정기 권한대행은 “올해 현재 재정 집행률이 낮거나 고착 상태에 있는 현

안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간부들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신속하게 현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 추진의 기본 자세로 △업무에 대한 책임성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챙기는 엄밀성 △정책과 사업을 이해하고 추진하는 전문성 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권한대행은 이어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재정 집행의 타당성과 정책 효과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교육감 선거를 언급하면서는 “지금의 공직자의 청렴과 정치적 중립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기”라며 “이 원칙이 엄격히 지켜질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유 권한대행은 끝으로 국장과 부서장들에게 세부 실행 지침을 전달하며 “조



언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유 권한대행은 끝으로 국장과 부서장들에게 세부 실행 지침을 전달하며 “조

직 내 책임성과 전문성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국민공감대상 혁신경영 부문 수상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17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국민공감대상’ 시상식에서 대학교육 발전과 혁신적 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혁신경영’ 부문을 수상했다.

‘국민공감 캠페인’은 수많은 경영전략 및 브랜드 가운데 공감과 소통을 통해 성공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는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다.

전북대는 올해 ‘On AI 시대’를 공식 선

언하고 200억 원 규모의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학사·행정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있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수상은 전북대 구성원 모두가 함께 일궈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AI 기반 혁신을 바탕으로 지역과 국가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대학, 세계로 도약하는 글로벌 허브 대학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당신의 작은 실천이,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정읍시, 내장산 자연휴양림 개장 전 시범운영 실시

정읍시가 내장산 자연휴양림 개장을 앞두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범운영에 나선다.

시는 용산동 산 50번지 일원 시유지 49ha에 산림휴양관 1동과 숲속의집 9동을 조성 완료했으며, 내년에는 숲속의집 2동과 오토캠핑장을 추가해 휴양림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운영은 시민과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10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10월 이용분의 경우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11월 이용분은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산림복지과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한시적으로 산림휴양관 1만원, 숲속의집 26평형 3만원, 32평형 5만원의 사용료를 받는다.

시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시설물 재정보와 이용객 의견 수렴, 보완사항 점검 등을 진행해 개장 후 더 나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일부 공사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청시 유의해 달라”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휴양림이 정읍의 대표적인 산림복지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10월 15일까지 연장

군산시가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10월 15일로 연장한다.

대상 세목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당초 납부 마감일은 연휴 직후인 10월 10일이었으나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신고·납부 기한을 늘리게 됐다.

군산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통해 납세 편의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20일 반려식물과 함께하는 힐링 체험행사 개최

군산시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은파호수공원 수변무대 앞 공원에서 ‘군산시민 그린라이프, 반려식물 체험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직접 반려식물을 심고 가꾸며 그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반려식물’이란 ‘함께 살아가며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생활 속 동반 식물’을 의미한다.

특히 반려식물은 단순한 실내 장식의 개념을 넘어, 마음을 위로하고 생활에 활력을 주는 존재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시는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발맞추어 시민들이 식물을 통해 치유와 여가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체험행사를 통해 생활 속 치유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나만의 반려식물을 직접 심어보는 힐링 체험 △기존 반려식물의 영양 상태를 상담하고 맞춤 영양제를 제공하는 식물 클리닉 △자신이 기르는 반려식물의 분갈이를 할 수 있는 자유 분갈이존 등으로 구성된다.

도시농업관리사는 잎의 색·뿌리상태·수분관리 등 다양한 진단을 통해 맞춤형 관리방법을 안내해주고, 식물 영양제도 무료로 제공한다.

시는 다양한 체험을 준비해 시민들이 건강하게 반려식물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반려식물과 함께 하는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 ‘푸드테크 육성 정책위원회’ 출범

푸드테크 거점 도약 민·관 협력 전략적 식품 산업 육성 본격화

익산시가 미래 식품산업의 핵심인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본격화하며, 이를 이끌 ‘푸드테크 육성 정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시는 18일 시청에서 ‘푸드테크 육성 정책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 14명을 정책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할 전략과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익산시의 푸드테크 허브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이끌 핵심 자문기

구다.

이번에 위촉된 정책위원은 산업·학문·정책을 아우르는 민관학연 연대의 틀을 갖췄다. 인테이크·네오크레마·메타텍스처 등 푸드테크 선도기업을 비롯해 △월드푸드테크협의회 등 산업단체 △원광대·전북대·국립공주대 등 학계 전문가 △한국식품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등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됐다.

이 자리에서는 위촉장 수여에 이어 익산시 푸드테크 산업 추진방향이 제시됐고, 앞으로의 위원회 운영계획도 공유됐다.

특히 이날 오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열린 WFT25 포럼에서는 ‘식물기반 푸드테크 산업’을 주제로 익산시 푸드테크 육성 정책위원회 위원들

을 비롯한 국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회 출범과 연계해 진행된 이번 포럼은 익산시가 푸드테크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과 실행 전략을 공유하는 상징적인 장이 됐다.

향후 시는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지원 △전문기업 유치 △산업인력 양성 등 푸드테크 산업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푸드테크는 식품 산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미래 핵심산업이며, 익산은 이미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푸드테크 성장을 위한 최적의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정책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익산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푸드테크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 ‘국가유산미디어아트’ 공모 최종 선정

총사업비9억여 원확보 2년 연속유산가치재조명

군산시가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2026년 국가유산미디어아트’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와 도비를 포함한 총 9억1,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국가유산미디어아트’는 지역의 독창적인 이야기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해 국가 유산의 새로운 가치를 선보이는 국가유산청의 공모사업이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군산시는 2025년에 이어 2년 연속 군산 내항 일원에서 국가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게 됐다.

군산시는 지난 7월 공모 신청을 통해 국가유산청 사업에 응모했으며, 이후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12개 지자체에 선정됐다. 군산 외에 선정된 지자체는 강화군·경주시·부여



군·아산시·양산시·여주시·익산시·진주시·철원군·정주시·통영시이다.

군산은 2026년 미디어아트 사업 주제를 ‘군산변화(群山繁華), 빛을 품다’로 정했으며, 올해 진행한 ‘군산의 빛, 꽃으로 물들다’라는 주제로 추진한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2년 연속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은 군산시 국가유산 활용사업 추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라며, “함께 진행되는 ‘군산국가유산야행’과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닌 야간 국가유산 활용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수요조사

인건비 상승·인력난 농가 부담 완화 최선

정읍시가 농촌 인구 감소와 농번기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를 나섰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법무부가 시행하는 제도로, 농번기 등 계절적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농업 현장에서 일정 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한다.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오는 10월 10일까지 신분증과 농업경영체등록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고용주로 선정된 농가는 근로자에

2026년도 최저시급(1만 3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시간과 휴게·휴일을 보장하는 등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학수 시장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가 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 주민자치 다이로움 한마당’ 공동체 화합 다져

프로그램 발표·전시 등 주민자치 활성화 도모

익산시가 주민자치 활성화와 공동체 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익산시는 18일 실내체육관에서 주민자치협의회와 함께 ‘제10회 익산시 주민자치 다이로움 한마당’을 개최했다.

올해 행사는 ‘하나된 익산, 꽃피는 주민자치’라는 주제 아래 △주민자치 발전 유공자 표창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작품전시회 △명랑운동회 △주민자치 활동 사진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이날 행사에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시민 등 1,000여 명이 함께하며, 지역 공동체의 힘과 화합을 보였다.

개회식은 지난해 익산시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우승팀인 ‘함열을 품물단’의 식전공연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 주민자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이 수여돼 주민자치 활동



의 성과를 되새겼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에서는 풍물, 댄스, 악기 연주 등 다양한 분야의 26개 참가팀이 무대를 꾸며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2부 행사는 주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명랑운동회와 재능기부 공연이 열려 흥겨운 분위기를 더했으며, 6개 읍·면·동에서 출품한 서예·문인화·캘리그라피·천아트 작품이 전시돼 풍성한 볼거리도 제공했다.

박종철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주민자치는 주민이 주인으로서 마을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이번 행사가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공동체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하나된 익산, 꽃피는 주민자치라는 주제처럼 주민 여러분의 열정과 연대가 익산의 미래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 것”이라며 “이제서도 주민자치 활성화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전북도 X 익산시 청년축제 ‘팡파르’

세대 아우르는 행사 풍성

청년들의 열정과 지역의 활력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축제가 익산에서 열린다.

익산시는 오늘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중앙체육공원 일원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2025 전북특별자치도 X 익산시 청년축제’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의 목소리를 담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의 젊음이 펼쳐지는 전북 청년축제’라는 의미를 담아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어우러지는 축제로 꾸며진다.

축제 첫날인 오늘 주요 프로그램으로 ‘솔로 이리와’와 ‘동네산책 로컬 워크(Local Walk)’, ‘슈퍼피크닉’ 등이 진행된다.

‘솔로 이리와’는 2025 전북청년생애이디어 사업에 선정돼 주목을 받은 2030 솔로 청년대상 매칭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에게 새로운 만남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한다.

‘동네산책 로컬 워크(Local Walk)’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익



산 구도심을 탐방하며 지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20일에는 실전취업 전략을 배울 수 있는 특강 ‘청년잡(JOB)담’, 최별 PD와 함께하는 ‘청춘공간 로컬라이브 토크콘서트’가 마련된다. 토크콘서트는 ‘다르게 사는 삶’을 주제로, 청년들의 공감과 성장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축제에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문화와 산업 속에서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청년들의 꿈과 도전이 익산에서 활짝 꽃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핵심 국책사업 발굴 성과 공유

국책사업발굴 보고회 개최

군산시가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5 국책사업발굴단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시장과 부시장, 국소장, 정책자문단, 전북연구원 관계자, 관련 부서장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발굴 과제 종합 보고 △질의응답 △분과 토론회로 회의가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부서별 핵심사업 실행과 국가에 산 확보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소개된 발굴 과제는 정부 기조인 ‘기본사회 실현을 통

한 성장’을 실현하고 군산의 미래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사업들로, 생활기본권 강화와 혁신산업 육성이라는 두 축에 초점을 맞추었다.

주요 과제로는 △K-Safety 군산 365 국민안전체험관 △그린수소 E-Fuel 실증단지 등이 포함됐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오늘 보고된 발굴 과제는 군산의 미래 10년을 준비하는 성장의 씨앗이다. 특히 AI·수소·블루프루드와 같은 미래산업 선도 과제가 포함돼 있어 군산의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주민 생활 밀착 개선

정읍시가 도시계획 조례를 정비해 소규모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환경 규제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30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으며, 9월 말 공포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면서도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세심히 고려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생산관리지역

에서 휴게음식점 설치가 가능해진 점이다. 상수도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바닥면적 300㎡ 이하 규모의 휴게음식점이 허용된다. 그동안 생산관리지역은 1차 산업 보호를 위해 건축이 제한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주민들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소규모 창업이 나 관공객 대상 휴게시설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를 통해 비도시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지황·쌍화차 매력 담은 ‘어울림 한마당’

정읍시가 지황과 쌍화차를 주제로 한 ‘정읍 지황·쌍화 이음 어울림 한마당’을 열어 시민과 관광객 1000여 명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을 만들었다.

행사는 지난 17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쌍화차거리 일원에서 열렸다. 정읍시를 비롯해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전북과학대학교, 정읍쌍화차거리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했다. 쌍화차 판매 및 체험 부스, ‘정읍쌍화차’ 5행시

공모, 참여 놀이마당이 열리며 흥겨운 분위기를 더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정읍 지황·쌍화 이음 어울림 한마당을 통해 지황의 가치를 직접 확인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지황과 쌍화차를 중심으로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행사가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완주군, 국가예산 21.6% 증액 ‘청신호’

**내년 예산안 수소·문화·SOC 등
주요 핵심사업 1,315억 규모 반영
5년 연속 5천억원대 확보 달성**

완주군이 1,315억 원 규모의 주요 핵심사업을 포함한 국가예산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시켰다. 이는 올해 주요 핵심사업 반영예산안 대비 21.6% 증가한 수치로, 완주군은 5년 연속 5,000억 원대 국가예산 확보에 청신호를 켜었다.

군은 주요 사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안호영 국회의원과 김관영 전북도지사와의 협력 아래 사업별 및 총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에 국비 필요성을 시의적절하게 제시해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주요 반영사업으로 △수소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센터 구축사업(2.8억 원) △문화유산도산단 조성사업(76억 원) △완주 운산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10억 원) △국립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건립(3억 원) △용진-우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482억 원) △대용량 무정전 전원장치(UPS) 안전 기술 개발(115억 원) △수소차 폐연료 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특화센터 구축(35억 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완주군의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군민 안전·편의 증진에 직결되는 핵심 과제로, 향후 지역 발전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은 오는 11월부터 시작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반영 및 과소 반영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추가 확보에 나선다. 군은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대응 전략을 고도화하고, 부처 및 국회에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 설득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마지막 국회 심의까지 흔들림 없이 대응해 최종적으로 예산 증액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두’ 준비

**정부 시범 공모 절차 본격 돌입
순창형 기본소득 모델·조례 ‘만반’**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5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보편적 복지를 선도하는 순창군의 발빠른 준비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69개 인구감소 지역 중 6개 군을 선정해 ‘군민 1인당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국가사업으로, 공모 절차는 9월 29일~10월 13일 접수, 10월 15일 발표평가, 10월 17일 최종선정으로 진행된다.

군은 시범사업 도입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해 왔다. 순창군은 지난 5월 예산 가용성 분석 등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전담조직인 ‘기본사회 T/F팀’을 신설하고, ‘순창형 농촌기본소득’ 모델을 마련했다.

이어 국회, 농림부, 전북도 등을 방문해 시범사업 필요성과 준비 상황을 설명했으며,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과



지난 15일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순창군의 ‘발빠른’ 공모 준비가 주목받고 있다. <사진=순창군>

추진단 구성으로 행정적 기반을 갖췄다.

군은 7월부터 9월까지 국회와 중앙부처, 연구원 등을 14차례 이상 찾아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공모계획 발표 이후에는 축적된 자료를 활용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실행 모델을 완성 중이다.

현재는 공모계획이 발표됨에 축적한 데이터를 토대로 군민 참여형 실행 모델 완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9일

법민간 포럼이 개최되고, 24일 국회에서 열리는 농촌기본소득 우수사례 포럼에서 최영일 군수가 직접 ‘순창군 보편적 복지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농촌 기본소득에는 축적된 자료를 활용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실행 모델을 완성 중이다. 현재는 공모계획이 발표됨에 축적한 데이터를 토대로 군민 참여형 실행 모델 완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9일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추석 전 농어업인 공익수당 61억 지급

**1만 814명 해택 인원수별 지급
완주사랑카드 충전 방식으로**

완주군이 민중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명절 준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이달 중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공익수당 지급 방식이 기존 ‘가구 단위’에서 ‘개인 단위’로 전면 개편돼 더 많은 농어업인이 혜택을 받게 된다.

군은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에 등록,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 1만 814명을 최종 지급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총 61억 원 규모의 공익수당이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1인 경영체는 60만 원, 2인 이상 경영체는 구성원별 1인당 30만 원씩이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농어업인으로 등록돼 있다면 인원수에 따라 지급된다.

예를 들어, 3인 가족이 모두 농어업에 종사할 경우 총 90만 원을 지원받아 명절 차례 준비나 선물 구입 등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번 공익수당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영농철 바쁜 일정으로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을 위해 6월 13일까지 신청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이후 8월까지 자격 검증을 거쳐 최종 지급 대상을 확정했으며, 지난해와 동일하게 완주사랑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군은 이번 공익수당 지급으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신관사도 부임행차·전통혼례 체험 하반기 재개

**남원특화 전통 프로그램 새 단장
전통혼례 실제 예식 행해지기도**

남원시는 이달 20일부터 지역 대표 전통문화 콘텐츠인 신관사도부임행차 공연과 전통혼례체험 하반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춘향전을 배경으로 한 신관사도부임행차 공연은 화려한 취타대를 선두로 가수단, 사또와 군관, 육방이 등장해 재치 있는 재담과 관객 참여형 연출을 선보이는 남원의 대표 문화 콘텐츠다. 특히 올해는 새로운 공연 의상과 다양한 퍼포먼스를 추가해 현장감을 높였으며, 매주 토요일 광한루원 일원에서 진행되는 퍼레이드는 남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흥과 맛이 어우러진 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전통혼례체험은 우리 고유의 혼례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로, 혼례단 퍼레이드와 전통 의식 절차 체험 등



남원시는 오는 20일부터 지역 대표 전통문화 콘텐츠인 신관사도부임행차 공연과 전통혼례체험 하반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남원시>

으로 구성된다.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한국 전통문화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체험 행사를 넘어서 실제 혼례로도 이어져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남원시는 지역특화 상품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남원의 대표 문화관광 자원

을 더욱 알리고, 관광재 유치와 체류시간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반기 신관사도 공연은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전통혼례체험은 9월 20일, 9월 27일, 10월 18일 3회 토요일 오전 10시 광한루원 일원에서 진행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종량제봉투 온라인 주문배송 도입

**전 과정 전산화 통합관리
지정판매소 편의성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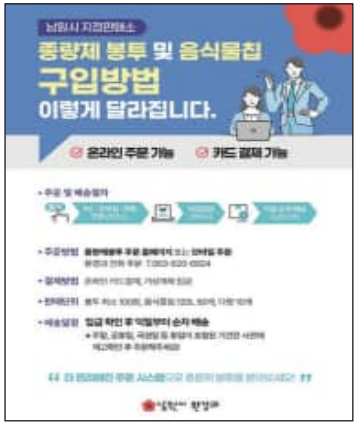
남원시는 종량제봉투의 재고·주문·판매 전 과정을 전산화하고, 지정판매소 대상 온라인 주문 및 카드결제 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고 관리·주문 접수·배송 업무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시는 ‘종량제봉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행정의 업무 효율성은 물론 재정 집행의 투명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새 시스템 도입으로 기존 전화 주문에 더해 PC·모바일 기반 인터넷 주문과 카드결제가 가능해졌다. 지정판매소는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 접속만으로 주문·결제가 가능해져 판매소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주문을 이용하려는 지정판매소는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시스템을 사용하면 되며, 전화 주문은 063-620-6924

/남원=정하복 기자



로 하면 된다.

남원시는 본격 운영에 앞서 9월 까지 동 지역 판매소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해 온라인 주문 절차를 안내하고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한 뒤, 10월부터 전면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시범 운영 결과를 반영해 읍·면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시스템이 판매소의 편리한 주문·결제를 지원하고, 더 나아가 효율적인 유통 구조 정착과 투명한 예산 관리를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군, 재난안전 협약위원회 개최…대응체계 강화

**군·유관기관 공동체계 공식화
지역 맞춤 실질적 대응방안 논의**

순창군은 지난 17일 군청 군수실에서 지역 내 안전망 강화를 위한 재난관리체계 구축 협약을 진행하고, 이어서 제2차 재난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협약식에서는 순창군과 유관기관이 재난 대응 공동체계를 공식화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와 합동 대응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재난 발생 초기 단계의 공동 대응, 기관 간 실시간 정보 교환 체계 확립, 대규모 재난 시 자원과 장비 공동 활용 등 실질적인 협력 시스템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어 열린 제2차 재난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는 최영일 군수를 비롯해 소방, 경찰, 보건, 교육, 민간 전문가



순창군은 지난 17일 지역 내 안전망 강화를 위한 재난관리체계 구축 협약을 가졌다. <사진=순창군>

등 각계각층의 위원들이 참석해 최근 국내의 재난사례를 공유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재난 대응 골든타임 확보 방안,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 대응 강화와 함께 내년도 재난안전예산(안), 순창장류축제 및 맥북이 페스타 안전관리 계획 등 주요 안건이 다뤄졌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군의회,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 선정 촉구

**정례회 개최조례안 13건 심사
기본소득 시범사업 건의안 채택**

순창군의회(의장 손종석)는 17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29일까지 13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특히 신영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신 의원은 순창군이 ‘기본사회 T/F’를 신설하고 예산 분석, 전문가 자문,

조례 제정 준비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준비해온 점과 생애주기별 보편적 복지정책 추진으로 최근 2년간 전방포내 인구증가 지역으로 선정된 점 등이 순창만의 강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 기본계획 수립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선정 등 생활여건 개선에 앞장서온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순창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최적지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조정희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순창군이 반드시 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제15회 동상면민의 날 성황리 개최

**유희태 군수 등 600여명 참석
유공자 표창·동호회 연주 무대**

완주군 동상면민 운동장에서 ‘제15회 동상면민의 날’ 기념식과 체육·문화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유익식 완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관내 기관·단체장, 출향인사, 동상면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에 앞서 완주군 동상면 생활문화센터 수강생들이 준비한 기타 연주와 라인댄스 공연이 펼쳐졌다. 이어 길잡이 풍물패가 풍성한 울림으로 무탈과 번영을 기원하며 흥을 돋웠다.

기념식에서는 완주군과 동상면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2명에게 군수상을 비롯한 7개 분야 표창이 수여됐다. 이어전 체육행사는 권원택 동상면 체육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했다. 지난 대회 우승팀의 우승기 반납과 선수 대표의 선서에 이어 리벌 고리걸기, 투호, 제기차기 등 전통 민속경기가 열렸다.

오후에는 문화행사로 마을 대항 노래자랑이 개최됐다. 축하공연으로 동상면 색소폰 동호회 회원들의 연주와 완주군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트로트 가수 현진우 씨의 무대가 펼쳐졌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 피지컬AI·코딩
초등학생 창의체험 교육 운영**

완주군이 인공지능(AI)과 코딩을 활용한 창의체험 교육을 통해 초등학생들의 미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군은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2025 교육발전특구사업의 일환으로 ‘완주군 미래인재 피지컬 AI 교육’을 운영하며, 참가 학생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AI 자율주행 자동차(알티노)를 활용해 초등학생들이 인공지능 시스템의 원리와 센서 제어 코딩을 직접 배우고 실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삼례읍·이서면·고산면·구이면 등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이 운영하는 완주학당 지정 장소에서 열린다.

참가 대상은 완주군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으로, 반별 10~15명 내외로 운영된다. 수업은 총 4차시로 진행되며, △AI 자율주행 자동차 시스템 이해 및 후륜 모터 제어 △조향·소리 센서 코딩 △조도·거리 센서 코딩 및 추진 주차 실습 △종합 자율주행 코딩 실습 등 단계별 체험학습으로 이뤄진다.

현재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에서 오는 23일까지 접수 받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이 피지컬 AI 실증도시로 도약하는 데 함께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아이들이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섬진강미술관
세계사에전북비엔날레전 개최**

순창군은 이달 20일부터 ‘세계사에전북비엔날레-순창展’을 섬진강 미술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2025 서예, 전북의 산하를 날다’라는 주제로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에서 동시에 열리는 대규모 서예 행사로, 순창에서는 지역 서예의 정체성과 흐름을 드러내는 자리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순창 출신 및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서예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서체와 기법이 담긴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작가들은 각자의 개성과 예술적 시선을 담아, 서예가 단순한 글씨 쓰기를 넘어선 고도의 예술 장르임을 관람객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전시를 통해 순창 서예의 계보와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 서예 애호가뿐만 아니라 일반 관람객들에게도 깊은 감동과 신선한 예술적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 장소인 섬진강 미술관은 아름다운 섬진강변에 위치해 가을 정취를 느끼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으로,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월요일은 휴관한다. 입장료는 무료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 ‘한달살기’ 게스트 하우스
4차 입주자 모집**

남원시가 한달살기 게스트하우스 입주자 모집을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10일간 4차 입주신청을 받고 있다.

남원시에서 운영 중인 임시거주시설인 주생 체재형 실습마을 내에 있는 게스트 하우스에서 1개월 간 거주하며, 남원시에서의 귀농·귀촌 사전 생활을 미리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입주자 선정 기준으로는 신청서를 토대로 그린대로 귀농귀촌홈페이지 및 남원누리집 가입 여부와 더불어 신청연령, 귀농 교육 수료 등을 참고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거주 시설의 크기는 약 22㎡의 규모로 기본가전제품(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은 완비되어 있고, 보증금 50만원에 월 150,000원의 사용료로 30일간 이용할 수 있다.

남원시 한달살기 게스트하우스는 올해 12월까지 운영되며 세부내용은 남원시 홈페이지 및 귀농귀촌 대표 포털 그린대로에서 확인 가능하고, 각종 안내와 신청 등은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새살타저작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무주 안성면지사협, 어르신 안전 손잡이 설치 추진

무주군 안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일중, 민간위원장 김창호)가 어르신 일상생활 행복 증진에 앞장서 귀감이 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협의체 회원들은 안성면에 거주하는 거동 불편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안전 손잡이 설치 사업'을 마쳤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생활 안전과 일상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독거 및 저소득 어르신이 거주하는 29가구의 침실과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했다.

김창호 안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어르신들이 화장실이나 잠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불편하시기도 하고 낙상사고도 잦아 손잡이 설치해 마음먹게 됐다"라며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발굴에 더욱 힘써 어르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희호 기자



고창 고창읍새고창로타리,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추진

고창군 고창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임진용, 이하 지사협)와 새고창로타리를 지난 15~17일 월산마을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은 새고창로타리 후원과 고창읍복지회 문화기금,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및 통합사례관리사업 등 1000만원 상당의 예산으로 진행됐다. 도배·장판·싱크대 교체, 이중창 설치,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 등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펼쳤다.

특히 주거 내 과도한 물품 적치와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따뜻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장장박증이 있는 취약계층 가구의 건강한 일상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 주민은 "집 안이 너무 낡고 어수선했는데, 도배도 새로 해주시고 쓰레기 정리까지 도와주셔서 큰 힘이 되었다"며 "따뜻한 관심과 도움 덕분에 마음까지 새로워지는 기분"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지방시대위원회, '혁신자치 특별위원회' 출범

균형성장주민자치권 확대

지방시대위원회는 18일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통한 균형성장 전략의 성공을 위해 혁신자치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혁신자치는 주민과 공동체가 주도해 창의적 아이디어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개념으로, 국민이 정책 과정의 주인이 된다는 이 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김경수 위원장은 이날 윤난실 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현장 경험 이 풍부한 사회혁신·주민자치 전

문가 등 총 19명을 위촉해 구성했다.

김경수 위원장 인사말에서 "혁신자치는 사회혁신과 주민자치를 결합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며 "혁신자치특위가 정치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현장에서 풀어갈 해법을 찾아 잃어버린 3년을 신속히 극복하고, 지역별 편차를 줄이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사회 변화를 이끌 주체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윤난실 위원장은 "지역 현장에서 활동하며 단체장과 의회 중심



의 운영으로 주민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민주주의의 척도인 주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장정철 기자



익산지역 세무사회, 온누리상품권 100만원 기탁

익산시는 18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익산지역 세무사회(회장 권의찬)'와 기탁식을 진행했다. 이날 기탁식에서 익산지역 세무사회는 온누리상품권 100만 원을 전달했다. 기탁된 온누리상품권은 익산시 드림스타트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아동 가정에 배부될 예정이다.

익산지역 세무사회는 세무사 제도 창설 64주년을 맞아 세무사 제도 9주년을 맞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돕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탁에 나섰다.

익산지역 세무사회 관계자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임실군-오수관촌농협, 농촌 왕진 버스 운영

280여명 농업인 참여 '큰 호응'

임실군과 오수관촌농협이 지난 11일 오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농협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정환), 농협임실군지부(지부장 이재문)가 참여한 가운데 올해 두 번째 '농촌 왕진 버스'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왕진 버스는 한방진료(자생의료재단), 구강검진 및 교육(원광대 치과), 검안 및 돋보기 지원(다비치안경) 등 실생활에 밀접한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을 찾기 어려운 고령 농업인들과 의료 시설이 부족한 농촌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

특히, 당초 계획보다 많은 280여 명의 농업인이 참여해 다양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받으며 큰 호응을 얻었다.

무엇보다 이번 사업은 농업인의 건강과 복지 향상뿐만 아니라 도농상생과 농촌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에도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임실=한병열 기자



정읍도정공장 안신 대표, 장학금 200만원 기탁

정읍도정공장 안신 대표는 18일 지역의 미래를 이끌 청소년들을 위해 장학금 200만원을 정읍시민 장학재단에 기탁했다.

안 대표는 "정읍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며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작은 보탬이 되고 싶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학수 시장은 "안 대표님의 뜻을 소중히 담아 장학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정읍시 수성동에 위치한 정읍도정공장은 정부양곡을 관리·가공하는 도정 시설로 하루 53톤의 가공 능력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에는 약 2만 톤 이상의 가공 실적을 기록하는 등 지역 농업과 식량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정읍=김정연 기자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생명존중교육 실시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일신)는 지난 17일 한빛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현실을 개선하고, 정서적 변화가 큰 사춘기 청소년들의 생명존중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를 주제로 극한 상황 대처 방법, 학교 내 친구

돕기 등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자살을 고민하는 친구가 보낼 수 있는 경고 신호를 알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며 "주변 친구들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생명지킴이 역할을 실천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군산 소룡동지사협, 저소득 가구 매트리스 케어 사업 추진

군산시 소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내 저소득 가구의 건강과 쾌적한 잠자리 제공을 위한 '저소득 가구 매트리스 케어' 사업을 지난 17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소룡동의 대표 복지사업으로 지난해 처음 선보인 후 대상자들의 큰 호응을 받아 올해도 추진하게 됐다.

선정된 소룡동 관내 저소득층 100가구는 매트리스 케어 전문가가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매트리스 청소를 진행하며, 일부 노후된 매트리스는 새 매트리스로 교체 진행할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 [부고]

이말여 별세
오규삼(전 완주군부군수), 오경재(원광대 의과대학교수) 모친상

빈소 : 전주효자장례타운 특101호실 2층
발인 : 9월 20일 오전 8시
장지 : 전주송화원
연락처 : 010-3675-7881

함께해요!

플라스틱 줄이기

일회용 플라스틱을 생산 하는데는 5초,

사용하는 데는 5분, 분해 하는데는 500년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플라스틱 줄이기' 함께 실천 해 주세요



〈一事一言〉



김정은의 ‘안리경중’과 신냉전 굳히기 성공할까(2)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면 6년 8개월 만에 다시 중국을 찾는 게 된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북·중 및 북·러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북·중·러 3자 정상회담은 중국 측이 난색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방중 목적은 당장 한미일 남방삼각에 맞설 북중러 북방삼각을 구축하지는 못하더라도, 북·러 관계 강화를 통해 안보는 러시아로부터 보장받고 북·중 관계 증진을 통해 경제적 이익은 중국에게서 얻는다는 ‘안리경중(安瀾經中)’의 전략구상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지난 7월 1일 제80주년 전승절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대신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특사단을 중국에 보냈다. 신정부의 한중관계 개선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은 2015년 제70주년 전승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면서 많은 외교적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은 ‘균형외교’를 통해 한·중 관계를 강화하고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에 공동 대응하는 성격이 강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얻고 한·중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실용외교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었다. 하

지만 박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에 대해 한국이 미·일 동맹에서 벗어나 중국에 기울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서방국가 정상 중 유일하게 참석한 점이 논란을 키웠다. 중국의 전승절이 단순한 외교적 행사를 넘어 동아시아 안보구도와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중국전승절의 명칭은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기념일’이다. 명칭에서 보듯이 전승절 행사의 목적은 ‘반일 반서방 국제연대’에 있다. 또한 중국공산당 정부가 전승절 행사를 대대적으로 거행함으로써 항일전쟁의 주체가 장개석 국민당 정부가 아닌 공산당 정부에 있다는 ‘역사수정주의’를 노린 것이다. 이는 중국 주도의 대만 통일을 정당화하는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박근혜의 중국전승절 열병식 참석은 결과적으로 한·일 및 한·미 관계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크게 약화시켰다. 역대 정부가 원칙을 지켜왔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졸속으로 처리하고 햇볕정책의 성과로 만들어진 개성공단 이 문을 닫게 되었다. 또한 주한 미군에 대한 사드 배치 허용으로 이어지면서 중국정부가 한한령(限韓令)을 발동하는 구실을 제공했다. 박근혜 정부의 근시안적 인 대중 우호 정책이 역설적으로 한·중 관계를 악화시킨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24일 한·중 수교 기념일에 맞춰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한 대통령 특사단을 중국에 파견했다. 이날 이 대통령 방일, 방미 기간과 겹쳤기 때문인지, 시진핑 주석을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해 ‘홀대’ 논란이 불거졌다. 과거 대통령 특사들이 중국에 갔을 때 시 주석을 만나는 것이 관례처럼 되었기 때문이다. 중국 특사단이 시 주석은 못 만났지만, 중국 측은 자오저지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왕이 외교부장, 왕원타오 상무부장 등이 나와 나름대로 특사단을 예우하는 모양새는 취했다. 이번 전승절 열병식을 관람할 천안문 망루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어떻게 예우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대중 특사단은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의 참석을 공식 요청하는 이 대통령의 친서를 왕이 외교부장에 전달했다. 지난 8월 31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10월 말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은 시진핑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전승절’ 참석을 내걸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실제 시진핑이 경주에 올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만약 시진핑 주석이 APEC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바로 신냉전 구도의 형성을 의미하진 않더라도, 여전히 한·중 관계 개선은 이재명 정부가 내건 ‘국익중심의 실용외교’에 속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시진핑 주석이 APEC 참석을 위해 한국에 와 한·중 정상 회담을 개최하게 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에 따른 우려에도 불구하고 향후 한·중 관계는 크게 개선될 여지가 크다. 김 위원장이 그린 ‘한·미·일 vs.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형성될 여지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시진핑 주석이 참석할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이시바 일본 총리도 APEC에 참석해 다자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한·중은 물론 미·중, 중·일 양자 정상회담도 성사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구도 형성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고, 미국, 일본에 이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 북한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경주 APEC의 성공적 개최 여부는 이재명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의 성패를 가르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끝〉

본 칼럼은 시민언론 만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 설

새만금 메가샌드박스는 국가균형발전의 시험대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새만금 국가산단 내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된 데 이어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까지 최종 확정됐다. 전북이 오랫동안 추진해 온 굵직한 핵심 사업들이 연이어 국가 아젠다에 포함된 것은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중대한 이정표라 할 만하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러한 국정과제가 선언적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북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이다.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한계를 뛰어넘는 전략이다. 특정 기업이나 일부 산업에 한정된 특례가 아니라, 새만금 전역을 대상으로 규제를 제로화하고 첨단산업 실증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이를 통해 새만금은 글로벌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단순히 기업 유치를 넘어 산업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마련, SOC·세제·전력·인재·R&D 전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새만금은 291km에 달하는 국내 최대 매립지라는 물리적 장점에 더해, RE100을 실현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기반까지 확보한 준비된 전략지대다. 정부가 추진하는 ABCDEF(AI, Bio, Culture, Defense, Energy, Factory) 전략에 전북이 G(Global Mega Sandbox)를 더한 ‘ABCDEF+G 비전’을 내세운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첨단재생바이오, 헬스 산업 클러스터, K-푸드 수출 허브 등 미래

신산업을 단계적으로 실증하고 확산시킬 구상이 뚜렷하다. 이러한 전략은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제도적 틀만 마련됐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 실제 기업들이 투자를 결단하려면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정책 집행, 신속한 인허가, 인재 수급,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전북도는 전문가협의회 워킹그룹을 상시 운영하며, 9월과 11월 새만금정책포럼을 통해 국회·중앙부처·학계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거버넌스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실행력으로 연결되는지가 관건이다.

또한 새만금 메가샌드박스가 국가 차원의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와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제도 시행 초기부터 가시적 성과를 내야만 글로벌기업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패 사례가 쌓이면 ‘규제 없는 혁신 무대’라는 간판만 남을 수 있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산업·투자유치 전략을 공간계획과 긴밀히 연계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남원 공공의대와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그리고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이 3축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산업전략의 핵심이다. 특히 새만금이 메가샌드박스로 거듭난다면,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위기를 넘어 균형 있는 국가 성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전북이 이번 기회를 잘 살려내길 기대한다.



오늘의시

무지개를 위하여 / 광재구

영혼은 어디에 있어요?
영혼의 강은 찾을 수 있어요?
영혼도 숨을 쉬나요?
영혼의 날개를 본 적 있어요?
그걸 좀 보여주세요
당신의 가슴에서
내 가슴에 이르는 저 기나긴
다리의 이름은 무엇인지요?
색색의 꿈으로 빚어놓은
저 섬세한 바람의 술렁거림은 무엇인지요?
한 번도 본 일이 없고
한 번도 꿈꾼 적 없으면서
그냥 그렇게 가슴에 와 부서지는
저 그리운 빛들의 축제는 또
무어라고 부르지요?

시인 약력 : 1954년 광주광역시 출생. 전남대 국문학과, 숭실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1981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서 ‘사평역에서’가 당선돼 등단했다. 시집으로 ‘서울 세노야’, ‘참 맑은 물살’ 등이 있고 기행 산문집으로 ‘내가 사랑한 사람 내가 사랑한 세상’이 있다. 동화집 ‘아기 참새 찌꾸’, ‘낙타풀의 사랑’,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자장면’ 등을 냈다. 1992년 시집 ‘참 맑은 물살’을 펴냈으며, 동서문학상을 수상했다. 오월시 동인으로 활동했다. 순천대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독자광장

점점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 당신도 당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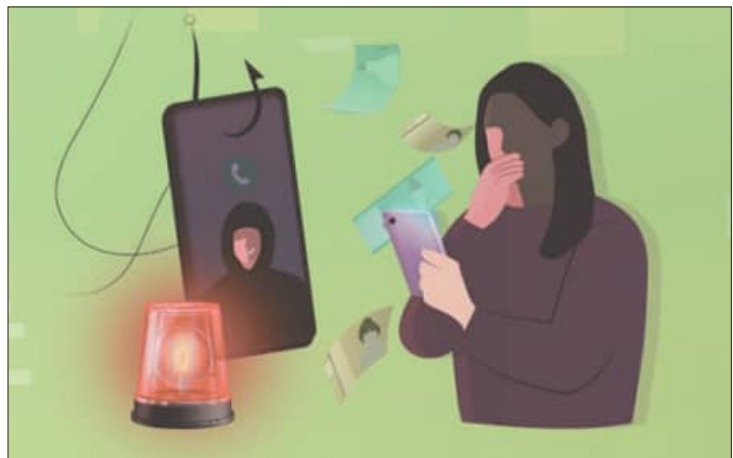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단순히 금전 피해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자책감으로 피해자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로 뻗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음성(voice)와 피싱(fishing)의 합성어로 전화 등을 통해 금전을 탈취하거나 갈취하는 범죄수법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등장해 현재는 AI, 메신저, 문자까지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보이스피싱 신고 건수는 587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가 증가했으며 피해액 역시 3116억원으로 2.2배 급증하였다. 5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

피해자의 53%를 차지했으며 젊은층을 겨냥한 대출사기, 메신저 피싱도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어 전 연령층 피해가 심각한 추세이다.

보이스피싱 수법에는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등으로 속여 보안계좌로 돈을 이체시키거나 앱 설치 등을 유도하는 정부기관 사칭형,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등의 대출사기형 수법 등 여러 유형으로 보이스피싱을 하여 시민들의 눈물을 자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전화번호를 맹신하지 말고 이다.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하므로 실제 은행, 검찰 번호로 와도 신뢰하지 말고 직접 확인해야 한다. 둘째 금융기관(은행, 검찰,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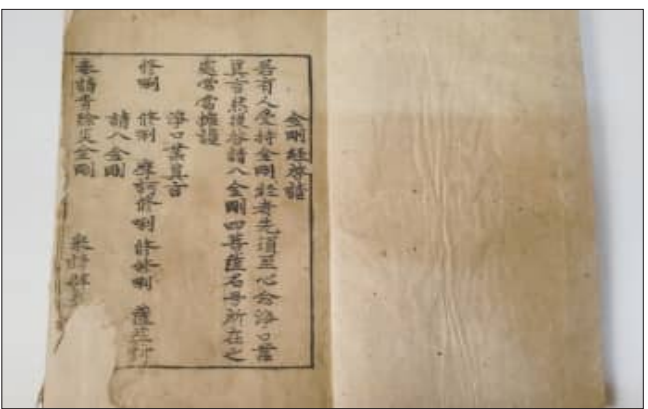
찰)은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절대 전화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말은 사기이므로 무시하여야 한다. 셋째 시티즌코난 앱 적극 활용이다. 시티즌 코난 앱은 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와 인피니그루가 공동 개발한 스마트폰용 악성앱 예방 앱으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악성앱이나 원격제어앱을 실시간 검색하고 삭제하여 AI

기반으로 문자 내 의심 링크 URL을 분석하고 차단하는 앱이다.

보이스피싱은 삶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이며 공동체의 안전과 소중한 금액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보이스피싱 예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공유하며 실천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정읍경찰서 상동지구대 순경 이한일

문화재열전



익산 성불사 육경합부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분류 - 기록유산, 목판본, 사찰본
- 시대 - 조선시대
- 지정일 - 2022년 9월 16일
- 소재지 - 익산시 왕궁면 안림길 42-1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5년 9월 19일		2011년 10월01일 創刊 /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발행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영지시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시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발북지시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전지시-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25 전북 일자리페스티벌 성황리 개최

“채용과 정책 잇는 소통과 협력의 장”

37개 기업 참여, 250명 채용 목표… 구직자 1,000여 명 몰려
현장 면접·취업 컨설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2025 전북 일자리페스티벌이 구직자 1,000여 명이 몰리는 뜨거운 열기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7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하림미션홀에서 ‘2025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페스티벌’을 열고, 구인 기업과 도내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는 소통과 채용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도내 37개 기업이 참여해 250명 이상 채용을 목표로 현장 면접과 채용 상담을 진행했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 27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다양한 일자리 정보와 지원제도를 소개했다.

특히 전북일자리센터 부스를 통해 행사 당일 참석하지 못한 22개 기업에 대한 간접 채용상담을 제공하는 등 기업 참여 폭이 넓혔다.

다.

행사장은 △기업채용관 △취업지원관 △전시체험관으로 구성됐다. 기업채용관에는 전북의 주력 산업인 농생명바이오, 탄소융복합 소재, 이차전지·수소 관련 기업을 비롯해 금융,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의 생활밀착형 기업이 대거 참여했다.

취업지원관에서는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이력서 작성, 모의면접, 대학 연계 직업 설계 등 실전형 컨설팅이 이뤄졌고, 구직자의 면접 대응력 향상과 직무 이해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또한 전시체험관에서는 퍼스널컬러 진단, 이력서 사진 촬영, 면접 메이크업과 같은 이미지 메이킹 프로그램뿐 아니라, 취업타로, 지문 적성검사, 취업 스트레스 상담 등 체험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내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전북자치도는 일자리 분야에 기여한 3개 우수기업과 유관기관·공무원 등 총 15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수상 기업은 △정읍시 ㈜세창스틸 △김제시 ㈜석경에이티 △완주군 ㈜알앤디스로, 지역 산업 발전과 청년 고용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구직자와 기업 간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매칭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페스티벌은 단순한 채용 행사가 아니라 기업과 구직자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도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꾸준히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IMSIL N 치즈축제

프리미엄 저지종 임실치즈와 함께 추석연휴
마음도 풍성한 한가위 10, 08(수)-12(일)

Jersey

CHEESE

IMSIL N CHEESE FESTIVAL

WWW.IMSILFESTIVAL.COM